

회전운동과 반중력

| 데이비드 윌콕 | 박병오 옮김 |

사물의 원자들이 결맞음 상태에 들어가면 광속의 공명상태에 들게 되고 그것은 중력을 거슬러 부양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메커니즘에는 회전력이 있음을 설명해줍니다(편집자 주).



토네이도 효과와 공중부양

양성자들, 중성자들, 전자들, 모든 원자들과 버키볼이라 부르는 60개 또는 그 이상의 원자들의 덩어리마저도 모두 파동과 같은 상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모습이 발견되어 왔는데, 그곳에서 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라슨의 새로운 물리학 모형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제 이 입자들이 타임스페이스라고 하는 평행현실로 – 이곳에서 시간은 3차원적이다 – 넘어 들어가는 변화들을 보고 있다. 블라디미르 긴즈버그 박사는 고전적인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뒤집어보고는 원자들과 분자들이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속할 때 질량을 잃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코지레프의 실험들에서처럼 한 물체를 부딪히게 하거나 흔드는 것만으로도, 또는 드팔머의 회전구슬 실험처럼 한 물체를 빠르게 회전시킴으로써, 분명히 원자 안의 내부 운동을 빛의 속도 이상으로 가속하고 측정 가능할 만큼의 무게를 줄일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코지레프는 또 잃어버린 질량이 돌아오는 데는 15분에서 20분이 걸리며,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보다는 갑작스러운 도약(jump)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 새로운 과학에서 중력과 시간은 서로 연결된다. 결국, 모든 원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력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소스필드라고 부르는 에너지 안에 있는 모션의 볼텍스들이다.

잠깐 시냇물의 소용돌이를 생각해보자. 그 소용돌이로 들어갈 때 물이 조금이라도 실제로 사라지는가? 그 볼텍스로 빨려 들어간 다음에 물에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이 어떤 평행현실로 옮겨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 당연히 아니다. 물은 분명히 아직 그 시냇물에 있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지구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일까?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 흐름은 또한 지구 밖으로도 다시 흘러나와야 한다. 아래로의 힘인 중력은 위로의 힘도 가져야 한다. 중력의 상대 개념을 부르는 내가 좋아하는 이름은 부양력 levity이다. 소스필드 또는 중력은 우리의 행성으로 밀려 들어와서 지구 위의 모든 원자들과 분자들을 한 꺼번에 창조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 같은 이 에너지흐름이 지구에서 다시 흘러나오면,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의 운동량을 잃었다. 그래서 지구로 들어올 때보다 조금 더 느리게 여행할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아래로 누르는 힘과 끊임없는 줄다리기를 벌이는 지구에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래로의 힘이 아주 조금만큼만 더 우세함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들의 균형을 잡기 위한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그 즉시 중력의 압력으로 납작하게 눌러버릴 것이다.

원자들과 분자들은 중력 속의 볼텍스들이나 다름없다. 라슨의 모형에서는 실재하는 3개의 차원들만 있고, 이 절대 현실에서 공간과 시간은 하나이자 같은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현실에서의 공간이 다른 현실에서의 시간을 창조하는,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두 개의 평행현실들이 있다. 이 두 현실들 사이의 끊임없이 흐르는 교환이 모든 원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의 원자가 타임스페이스로 튀어 들어갈 때, 그것의 회전운동량은 그 평행현실 안에서 유체와 같은 에너지로 옮겨가고, 더 이상 우리 시공간의 중력에 영향 받지 않는다. 중력은 이제 그 원자를 더 이상 누르지 못하고 그곳을 바로 지나간다. 하지만 그 원자(또는 타임스페이스의 볼텍스)가 속도와 운동량을 잃기 시작한다면, 중력은 그것을 시공간으로 다시 끌어당긴다. 코지레프의 실험들에서 봤듯이, 많은 원자들을 가진 좀 더 큰 물체에서의 이 전이과정에는 15분에서 20분이 걸리기도 한다. 흥미롭게도, 유명

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저 펜로즈 Roger Penrose는 1997년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한 호에서 중력이 양자 수준에서 입자와 파동 사이의 전이를 일으킨다고 했다.¹ 할 푸토프 박사는 중력과, 독일인들이 “치터베베궁 Zitterbewegung”이라고 부르는 모든 입자들 속에서 요동치는 운동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추정했다.²

1982년으로 돌아가서, 프린스턴 대학의 과학자들은 전자들이 초저온에서 세상에서 가장 센 자석으로 충격을 주면 유체처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우리의 모형과 아주 잘 맞아떨어진다.

전자들은 서로 “협력”하고 함께 일하면서 과학자들이 “양자유체 quantum fluid”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듯했는데, 이것은 전자들이 개별적으로 회전하는 단위들이라기보다는 수프와 더 비슷하게 정확히 똑같이 행동하는 지극히 드문 상황이다.

부양력이 추진력을 만든다

여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있다. 이론적으로 시공간에서는 중력이 원자를 누르지만, 원자가 타임스페이스로 일단 넘어 들어가면, 이제 부양력이 그것을 밀게 된다. 이 말은 곧 우리의 현실에서는, 원자가 아직 타임스페이스로 넘어가지 않은 다른 원자들과 여전히 서로 긴밀하게 묶여 있는 한, 그 원자는 이제 추진력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한 물체를 공중에 뜨게 하려면, 그것의 분자들이 우리 시공간의 3차원 현실에 반은 들어 있고 반은 나가 있는 지점에 있게 해야 한다. 그와 같이, 부양력은 이제 중력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우리 폐 속의 공기 양을 조절함으로써 물속에서 가만히 떠 있는 방법과 다를 바

승려들이 돌덩어리의 바른 결맞음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바위의 원자들을 광속의 경계를 넘도록 공명시킬 수 있다.
 그러면 원자들은 타임스페이스로 들어가고,
 부양력에 의해 밀리면서 바위에 추력을 준다.

없는 것이다. 물체를 타임스페이스로 너무 멀리 밀면, 그것은 비물질
 화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현실에서 물체를 떠오르게 했던 같은 힘은
 이제 평행현실에서 그 물체를 떨어지게 할 것이다. 중력을 이어받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평행현실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들 사
 이를 지나다닐 때 뫼비우스고리 Möbius loop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하
 는지도 모른다.

자연은 이런 원리들을 언제나 이용한다. DNA 분자는 빛의 광자
 들을 저장하는데, 광속의 경계에서 이와 똑같이 들락날락하는 것이
 DNA가 시공간과 타임스페이스의 사이에서 – 우리의 육체와 에너지
 사본 사이에서 – 쉽게 에너지와 정보를 주고받게 해주는 것이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기의 볼텍스(토네이도 부양)에서 일어나
 는 중력 차단 효과, 물의 볼텍스(송어가 수직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 식물의 섬유(수액 흐름에서의 비밀스러운 구성 요소)와 곤충의 날
 개(큰 곤충들이 공기를 타고 머물면서 다른 곤충들과의 충돌을 피하게
 하는)는 물론이고, 적절히 이해되지만 하면 전자기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소리를 이용한 티베트의 공중부양

이 말이 복잡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그 실제 기술은 쉬운 것이며, 결맞음을 만들기 위해 거의

아무 기술도 필요치 않다. 내가 지금껏 찾아낸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바로 ‘티베트의 음향 부양Tibetan Acoustic Levitation’인데, 이것은 내가 몇 년 동안을 이해하려고 애썼던 또 다른 “괴상한 과학weird science”의 한 부분이다. 이 이야기는 스웨덴의 항공기 설계자인 헨리 켈슨Henry Kjellson에게서 나온 것으로, 켈슨은 이 이야기를 한 저널리스트에게 모두 묘사해줬고 다시 그는 이것을 한 독일 잡지에 실었다. 브루스 캐시Bruce Cathie라는 진정으로 혁신적인 뉴질랜드 연구자가 이것의 자세한 분석을 데이비드 해처 차일드레스David Hatcher Childress의 『반중력과 세계격자Anti-Gravity and the World Grid』에 썼다.

헨리 켈슨에게는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역시 스웨덴 출신의 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닥터 잘Jarl이라고만 알려지길 원했다. 켈슨의 말로는, 닥터 잘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 젊은 티베트 학생의 친구가 되었다. 닥터 잘은 나중에 영국의 한 과학협회의 지원으로 이집트에 갔을 때, 그 티베트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았고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해왔다. 그가 전해온 소식은 무척 좋은 것이었다. 닥터 잘의 친구는 수도원의 신임 받는 승려가 되었고, 이제 티베트의 한 고승이 닥터 잘을 만나고 싶다고 말한 것이다. 그것도 다급히. 그 무렵 닥터 잘은 티베트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도록 허락받았고,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기록하고 보고했다고 한다. 그곳에 있으면서 닥터 잘은 이전에는 서양인들이 목격하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일들을 보게 되었다. 스웨덴 공학자 올로프 알렉산더슨의 말에 따르면, 모든 것의 가장 큰 비밀은“진동하고 응축된 소리장sound field이 중력의 힘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나버Linaver, 스폴딩Spalding, 휴Hue와 같은 다른 티베트 전문가들도 티베트인들이 소리를 이용해서 거대한 돌들을 공중에 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닥터 잘도 이 전설 같은 이야기

들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서양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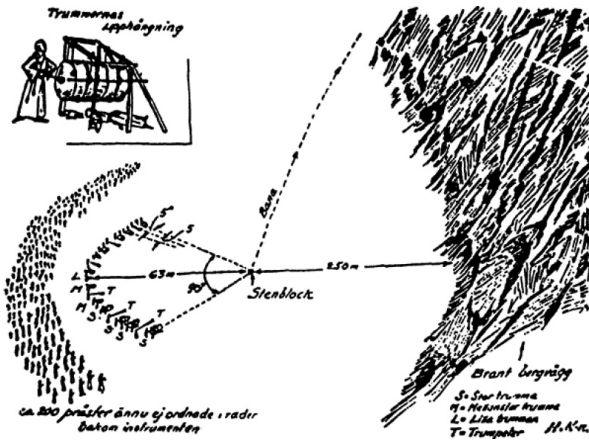
닥터 잘은 북서쪽으로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경사진 초지로 따라 갔다. 한 절벽 위에는 지상에서 250미터쯤 되는 곳에 튀어나온 바위가 있었고 이것은 동굴 하나로 이어졌다. 티베트인들은 이 바위 위에 커다란 석재로 벽을 쌓고 있었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밧줄을 잡고 똑바로 올라가는 길 말고는 없었다. 절벽에서 25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는 한가운데를 그릇 모양처럼 파낸 매끈한 판석이 놓여 있었다. 판석의 너비는 1미터였고 파낸 부분의 깊이는 15센티미터였다. 그때 야크와 황소 무리가 커다란 석재를 그 판석으로 끌고 왔다. 돌은 믿기 힘들 만큼 컸고, 그 높이가 무려 1미터에 길이는 1.5미터였다.

이 대목이 괴상한 부분이다. 13개의 북과 6개의 나발들이 완벽한 사분원(90도) 호를 이루며 모두 그 돌을 겨냥하면서 섰다. 북들은 모두 3밀리미터 두께의 철판으로 만들어졌고, 승려들이 가죽을 입힌 북채로 두드리는 면은 동물의 가죽이 아닌 금속이었다. 반대 은 열려 있었다. 6개의 나발은 모두가 무척 길었고—정확히 3.12미터—끝 부분이 30센티미터 열려 있었다. 승려들은 돌과 이 악기들의 사분원 진영 사이의 거리를 주의 깊게 잴고, 그것은 63미터로 나왔다. 13개의 북 가운데 8개는 정확히 돌의 크기와 같았다. 너비가 1미터에 길이는 1.5미터. 북 4개는 더 작았지만, 너비가 0.7미터에 길이가 1미터로 큰 북의 용적보다 정확히 3분의 1이 작았다. 나머지 북 하나는 가장 작아서 너비가 0.2미터에 길이가 0.3미터로 이 또한 완벽한 조화 비를 가졌다. 용적으로 따지면, 중간 북 하나는 작은 북 41개와 같고, 큰 북은 작은 북 125개와 같다.

악기들은 정밀하게 돌을 겨눌 수 있도록 모두 받침대 위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 했는데,

바로 19개 악기들의 8~10미터쯤 뒤로 길게 줄을 이룬, 거의 200명이 나 되는 승려들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려들이 그 어떤 뚜렷한 에너지를 이 구성에 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소스필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악기들은 승려들이 의식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던 에너지를 집중하고 응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인 듯했다. (이것은 또 하나하나의 악기 뒤로 늘어선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들 안에서 결맞음을 만드는 데 적절히 훈련되지 않으면 왜 실험이 소용없게 되는지를 말해주는 이유다.)

스웨덴의 항공기 설계자 헨리 켈슨이 그린 티베트 음향 부양의 스케치.



200명의 승려들이 북과 나발을 가지고 커다란 돌들을 부양시켰다.

이제 그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브루스 캐시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돌이 제자리에 오자, 작은 북 뒤의 승려가 연주회를 시작하자는 신호를 했다. 작은 북은 아주 날카로운 소리를 냈는데, 다른 악기들이 내는 끔찍한 소음들 속에서도 귀에 들릴 정도였다. 모든 승려들은

노래하고 주문을 외우면서 이 믿기 힘들 만큼 시끄러운 소음의 템포를 천천히 올리고 있었다. 처음 4분 동안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때 북소리와 소음이 빨라지면서, 커다란 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떠올라서 250미터 위에 있는 동굴 앞의 바위 쪽으로 조금씩 더 빠르게 올라갔다. 떠오른 지 3분이 지나 돌은 그곳에 내려졌다.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대피라미드를 만드는 데 쓰였던 돌들만큼이나 큰 거대한 돌이 어림잡아 400미터의 호를 그리며 길고도 천천히 느릿느릿한 3분 동안의 여행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분명히 어떤 전통적인 방법으로 한 물체를 떠오르게 하는 데 북과 나발과 주문의 힘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다. 그러나 승려들이 돌덩어리의 바른 결맞음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바위의 원자들을 광속의 경계를 넘도록 공명시킬 수 있다. 그러면 원자들은 타임스페이스로 들어가고, 부양력에 의해 밀리면서 바위에 추력을 준다. 이 동안에 그 바위를 만져본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스펀지처럼 되어 있지 않을까 싶다. 분자들의 반 정도가 더 이상 우리 현실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페루의 사크사우아만Sacsayhuaman에 있는 거대한 돌들이 어떻게 먼도날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빈틈없이 맞물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듯하다. 원자들을 타임스페이스로 점점 더 많이 보낼수록, 바위는 점토처럼 부드럽고 물렁물렁해진다. 토네이도 이상 현상들에서 이미 본 것처럼, 단단한 물질들이 결맞음 상태가 될 때 부드러워지고 스펀지처럼 되는 많은 사례들이 있다. 돌들의 일부는 강도가 약해서 쪼개져버리기도 했고, 승려들은 그것들을 치웠다. 그런데도 승려들은‘생산 라인’을 계속 가동했고 이 방법으로 한 시간에 모두 5~6

개의 돌덩어리들을 옮겼다. 자, 이 부분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대목이다. 닥터 잘은 자신이 최면에 걸렸거나 어떤 종류의 집단 정신병에 걸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는 모든 과정을 두 번이나 필름에 담았다. 나중에 필름을 재생했을 때, 자신이 목격한 것과 정확히 같은 장면들을 보았다. 닥터 잘은 깜짝 놀랐고, 이 발견이 우리가 아는 대로의 세상을 아주 밑바닥부터 흔들어놓으리라고 느꼈다. 아마 문자 그대로도 말이다. 닥터 잘을 후원해왔던 그 과학 협회가 이 필름에 대해 알았을 때, 불행이 찾아왔다. 그들은 들이닥쳐서 원본을 압수해서 기밀에 부쳤고, 닥터 잘은 이러는 것이 “설명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느꼈다. 필름은 1990년이 되면 공개될 거라고 하면서 그들은 잘을 설득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다. (끝) 

- 이 글은 『소스필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데이비드 윌콕** David Wilcock | 에드가 케이시 Edgar Cayce의 환생이라 불리는 전문 강연가이자 영화제작자로, 오랫동안 고대 문명과 의식과학, 그리고 물질과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연구해왔다. 윌콕의 강의 영상 『2012년의 수수께끼 The 2012 Enigma』는 2백만 회 이상 시청되었다고 한다. 라디오 토크쇼 『코스트 투 코스트 AM』, 히스토리채널의 『고대의 외계인들 The Ancient Aliens』,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활발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구 위 모든 생명들이 하나의 의식 장(場)에서 통합되어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필름 『컨버전스 Convergence』를 공동 제작하였다. 인터넷사이트 『신성한 우주 Divine Cosmos』를 통해 의식의 확장에 관한 과학적이고 영적인 정보를 전해주고, 세계 권력들에 의해 감추어진 진실들을 폭로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스필드』 외에 공저 『에드가 케이시의 환생? The Reincarnation of Edgar Cayce?』 등이 있다.

역자 | **박병오** | 대학과 대학원에서 조경학, 생태학, 자연치유학을 공부했다. 농촌 관련 연구기관에서 일하다 시골에 들어가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실험해 왔다. 자연의학, 신과학, 영성 분야의 번역 기사를 제공하는 등 기화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번역한 책으로는 『은폐된 진실, 금지된 지식』이 있다.

소스필드

그 모든 의문 그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

저자 데이비드 월콧 | 역자 박병오 | 출판사 맛있는책 |

정가 22,000원

모든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 『소스필드』. 이 책은 이제까지 마이너리티의 과학, 비주류 과학의 주제였던 여러 현상들을 하나하나 탐구하면서 흥미롭게 시작한다. 저자 데이비드 월콧은 전 세계에서 진행된 다양한 실험 자료와 조사결과를 통해 소스필드의 존재를 증명한다.

